

新年特輯

# 78年度 養鷄

종계 · 부화 · 브로일러업

種鷄, 孵化부문

## 發展을 위한 기반 다질 수 있는 밝은 해

김 영 환 / 천호부화장 전무

주소 : 서울시상남구진호 1동 164-60

1977년의 부화업계는 오히려 1976년 보다 부진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충분한 양의 좋은 종계를 확보하지 못한 대부분의 부화장들이 오히려 1977년에 들어 양계가들이 원하는 초생추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8년에는 부화장이 필요로 하는 종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도 새로 갖추어 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

한 부화장에서는 이미, 벨기에제 부화기 피터사임 168(Petersime168), 프랑스제 부화기 베코토의 수입을 완료하고 시설중에 있으며, 또 다른 부화장에서는 미국의 제임스웨이(Big J) 부화기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계확보면에서 보면 외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종계 15만수와 순계 및 기타 내국계에서 생

산되는 종계가 분양되면 부화장이 필요로 하는 종계수수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1. 향후 5년간의 부화장기전망

81년으로 예측되었던 100억불 수출 1,000불 국민소득이 77년말로 앞당겨 지는 “한강변의 기적”을 보이는 가운데 이에 따라 축산물의 수요도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에만 들더라도 74년이후 매년 35% 이상씩 증가한 산란용 콤머셜치크가 불과 3년사이에 두꺼스로 100% 증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난가가 잘 유지되고 있고, 육계에 있어서는 75년에 32만수 정도의 육용종계가 입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77년에 육계과잉을 빚지 않고 오히려 부족현상을 나타내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

# 업을 내다본다

## 채란업 사료업 질병·방역

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판단기준을 가지고는 향후 부화업 전망을 예측 하는것이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는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수차의 가공처리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비교적 신빙도 높은 전망자료가 되지 않겠는 가 생각된다.

표 1에 의하면 1977년에는 37만수의 난용종계가 필요하며, 매년 약 16%씩 증가하여 81년도에는 약 59만수의 난용 피에스가 필요하게 된다.

육용계 수요증가도 산란계와 비슷해서 1976

년에 비하여 1981년에는 186%의 육계 수요증가를 이룰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5년간의 부화업계 규모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많은 양적 증가를 할것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더욱 수준 높은 질적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육, 위생관리, 시설, 개선면에 더욱 세밀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2. 77년 난용 피에스 입추량과 78년 난용실용추 생산전망

1978년 난용 실용추(卵用實用雛) 수요량을 최대한 1,900만수로 볼 때 금년의 난용종계 입

표1. 계란수요증가에 따른 난용 초생추 수요증가

년도	인구증가예측 (×1,000)명)	1인당 국민소득(불)	1인당 계란소비량	계란총수용 (×백만개)	난용초생추 수요(×1000수)	산란종계필요량 (×천수)
1976	35,860	700	85	3,048	16,095	321.9
1977	36,430	850	101	3,679	18,620	372
1978	37,009		115	4,256	20,622	412
1979	37,596		128	4,812	24,878	497
1980	38,196		152	5,805	26,892	537
1981	38,807	1500	165	6,403	29,487	589.7
76/81대비	108%	214%	194%	210%	183%	183%

## 신년특집 / 78年度 양계업을 내다본다

식량은 38만수가 되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1977년 생산되어 입식된 하이섹스, 바브룩, 세이버 288, 한협 122호, 축시 742호 등의 백색 산란 종계가 약 18만수에 불과했고, 거기에 한협유색, 로드아이랜드레드, 와펜을 합하면 도합 40만수에 이르는 계산이 된다.

1977년 필요량이 38만수 인데 비해 공급된 수량이 40만수라면 얼핏 생각하면 충분한 종계가 입식된 듯 보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백색 종계보다 갈색종계가 더 많이 입식되는 불균형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전국채란용 초생추수의 80%가 백색초생추인 것을 감안할 때, 77년 백색종계 18만수는 매우 부족되는 양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에 따라서 1978년 백색난용실용추의 생산량은 전반기 시즌에는 매우 부족된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에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산란종계 10만수에서 생산되는 초생추와 더불어 서서히 증가하며 10월 이후부터는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난용추를 생산하는 부화장의 명년경기는 일반적으로 좋을 것이 확실하며, 이를 계기로 하여 부화장측은 종계시설, 부화시설 개선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3 77년 육용피에스 입추량과 78년 육용실용추 생산전망

78년 육용실용추 필요량을 5,500만수(77년 4,000만수에서 35% 증가된량)로 추정할때 이에 따른 육용종계는 77년도에 약 69만수가 입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77년 육용종계입식량을 통털어 약 62만수선에 이른다고 볼때, 78년 육용 실용추 생산량은 수요를 충족시키지는 못하나, 76년도와 같은 심각한 부족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더 시 말해서 78년 전반기에는 계속 부족되는 상태를 나타내다가 10월을 넘어서면서 부족상태

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명년에 육계가격은 계절에 따라 별로 수익성이 좋지 않을 때도 왕왕 나타나겠지만, 육계 사육업자의 증가로 육용초생추의 수요가 크게 늘기 때문에 육계 부화장은 호황을 누리지 않을 것인가 보인다

### 4. 78년의 종계공급상황예측

한마디로 종계기근 현상은 1978년 부터는 사라진다. 우수한 종계를 대량 생산해 낼 수 있는 육종회사가 3개소나 있으니, P.S 생산 잠재수량이 얼마나를 따져서 그 다음해의 실용계 경기전망을 짐치는 방법은 이제는 한갓 어리석은 현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의 여부는, 종계생산잠재력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종계를 기를 종계장의 경제적 실력에 좌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잘 마련된 통제자료를 보고, 종계장의 과잉육추 의욕이 자제(自制)될 수 있어야 하고 실용추 사육자들도 같은 의무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혹자는 육종회사들이 단합하여 종계생산량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계가 3년씩 수입되지 않아도 끄떡없이 많은 실용추가 생산될 수 있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의견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종계를 강제환우만 하면 2~3년은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명년 부화업계를 전망해 보았다. 한 가지 명확한 것은 한강변의 기적이 가져다줄 부화업계의 기적을 위해 부화장, 종계장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생각된다. 부화업계는 때때로 불황도 닥쳐 오겠지만 이것이 청량제의 역할을 하여 한층의 발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것 이므로, 신념을 가지고 오직 꾸준한 정진을 하는 것만이 한국의 부화인상이라 할 것이다.